

스리랑카 10월 원조동향

선진원조국 및 국제기구 등의 10월중 스리랑카 원조동향은 아래와 같음.

1. 일본

□ JICA 구강건강 증진사업 지원

- JICA는 10월 한 달 동안 스리랑카 중부 Peradeniya 대학 치의예과와 협력하여 구강증진을 위한 TCTP(Third Country Training Programme)를 진행 예정임.

- 참가국 : 네팔, 라오스, 몰디브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부탄, 우간다, 캄보디아, 케냐, 탄자니아

- 동 프로그램은 2003~07년간 진행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세번째 진행되는 과정임.

- JICA는 1996년 동 대학 치의예과에 치과병동 건설, 의료장비지원 및 전문가 파견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한 데 이어, 1998~2003년간 스리랑카 국내 기술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.

□ 도쿄시의 중고 시내버스 지원에 대한 스리랑카 민간버스 부문의 반발

- 도쿄시는 스리랑카 공공교통의 승객 수송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177대의 버스를 지원했으나, 이에 대하여 개인버스 소유주 연합은 동 지원버스가 도심 운송시스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인버스 소유주 연합에 대한 버스 지원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음.

2. 미국

□ 채무 상환 유예

- 미국은 2005년중 스리랑카가 미국에 상환해야 할 채무 약 4천만불을 쓰나미 피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동 유예된 채무액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개월 단위로 7회에 걸쳐 상환해야 함.

□ 임시주거지에 피난중인 쓰나미 피해 주민들의 처

우에 대한 워크숍 개최

- 금번 워크숍은 임시거처에 주거중인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한 최상의 처우 방법 모색을 위하여 미국 정부 주관으로 콜롬보에서 개최됨.
- 동 워크숍은 아래 세가지 주제에 대하여 주로 논의함.

- Access to basic service : 이재민 캠프에 대한 원활한 용수 공급,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, 화장실 시설 개선,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및 원활한 전기공급 등 필요
- Site management : 캠프 거처의 구조적인 수리 필요
- Cross-cutting issue of concern : 이재민 캠프 내에서의 강력범죄, 성폭력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필요

3. 오스트리아

- 오스트리아는 스리랑카 동-서를 연결하는 Colombo-Batticaloa간 철도 재건을 위하여 약 2천만 유로 상당의 재정 지원 확정
- 동 재원은 그간 노후화되어 방치되었던 Valachchenai-Batticaloa간 철도 재건에 우선 투입되며, 동 사업은 현재 단 3대만으로 운행 중인 철도 노선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
4. 덴마크

- 덴마크는 150만 유로 상당의 Oluvil 항만 개발사업 지원
- 총 3,550만 유로가 투입될 항만개발 종합 프로

젝트 사업의 1단계로 금번에 150만 유로에 대한 지원이 확정됨.

- 동 사업은 항구 접안 고속도로 건설, 터미널 구축, 주택 건설 및 상업적 허브항구로서의 기능을 위한 기타 필요 건물들에 대한 건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
5. FAO

□ 쓰나미 피해 어민 지원

- FAO는 일본 및 벨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동북부 지역 쓰나미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6.7백만불 상당의 그물(2,628개) 및 보트엔진(90대)을 지원하였음.

□ 쓰나미 피해 농어민 지원

- FAO는 이태리의 Civil Production, 그리스 정부, ECHO 및 OCHA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남부 Hambantota, Matara 및 Galle 지역 농어민의 재활기반 구축을 지원함.
- 약 12천여 명의 농민들에게 볍씨, 채소종자, 비료 및 과일 묘목 등을 지원하여 농번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- 쓰나미 피해 해안 지역의 어민들을 위하여 약 400여대의 보트수리, 어구 세트 3,650개 및 보트 엔진 60개 지원

6. NGO 활동에 대한 반감 고조

- 이슬람 정서가 강한 Kinniya 지역에서 일부 NGO의 반이슬람적 활동에 대하여 동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음.

- 남성우월적 정서가 강한 이슬람 밀집 지역에서 일부 NGO들에 의한 여성채용 확대 및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, 훈련 및 여행 등에 있어서의 남녀동행 등의 행위에 대한 반감이 높은 실정으로, 동 단체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활동을 중지하라며 경고하고 있음.

[자료: 주스리랑카 KOICA사무소]